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미 경 고 재 흥[†]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및 배우자 특성의 이해정도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결혼기간과 관련되는지, 또한 부부 각자의 행복감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결혼기간이 다양한 13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 결혼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유사성은 부부 각자의 자기 지각간 프로파일의 일치도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배우자 지각과 배우자의 자기지각 간의 프로파일 일치도 크기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부부들은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서 유사하였으며, 부부는 배우자의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 모두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었다. 둘째,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부인 모두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졌지만, 결혼기간은 부부유사성과 배우자 이해크기와는 무관하였다. 셋째,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은 부부 유사성 크기와 무관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이해정도와는 주관적 안녕감이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부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인의 남편 성격이해가 클수록 남편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았으며, 남편의 부인 성격이해가 클수록 부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남편의 부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크기는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없었다.

주요어 : 부부, 성격, 가치관, 성역할 태도, 부부유사성, 배우자 이해, 주관적 안녕감

* 본 논문은 2008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고재흥,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E-mail : kopsy@kyungnam.ac.kr

우리의 일반적 통념은 성격, 가치관, 태도 등이 비슷한 부부일수록 부부생활이 원만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5년 10월 서울대 사회심리연구실에서 부부 280쌍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부들에게 자신이 ‘외향적인가 내성적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가 혼자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신경이 예민한가 아닌가’ 등을 질문한 결과, 유사한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서울신문, 2006년 4월 12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들 중 일부는 부부 자신이나 배우자의 특성이나 행동방식(예: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효과를 다루고 있다(권정혜, 2000; 김선영, 김영희, 2005; 이정은, 이영호, 2000).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부부 각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부간의 유사성이나 상호성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변인(예: 가치관의 유사성)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김향련, 고재홍, 2007; 고재홍, 전명진,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Morry, 2005, 2007). 이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실제의 속성 차이보다는 지각이나 생각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부간 성격이외에도 태도와 가치관 등에서의 유사성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예: 고재홍, 전명진, 2003; Acitelli, et al., 2001; Byrne & Blaylock, 1963). 이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결혼 생활에서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고재홍과 전명진(2003)은 (일반)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네 영역의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이것들 중 결혼관의 유사성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향련과 고재홍(2007)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성격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이해),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남편과 부인의 결혼 가치관이 실제로 유사하고(실제 유사성) 부인이 남편 자신의 결혼가치관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의 결혼가치관이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신과 배우자 지각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가 그들의 행복이나 안녕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부부들의 성격, 결혼 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에 대해 서로 유사한지, 또한 세 영역에 있어서 부부가 상대를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부부간 유사성크기와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결혼기간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

부부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결혼만족도란 개인이 결혼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다(예: Hawkins, 1968). 이는 개인의 욕구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Rice, 1979). 그러나 연구들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Veit와 Ware (1983)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물음으로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신뢰롭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녕은 주관적이며, 전반적인 안녕감을 말하며,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하는 정도이다(Andrew & Robinson, 1991).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안녕감은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이란 점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McDowell & Newell, 1990).

기존 연구들에서 다른 부부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가계수입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교육수준(예: 김선영, 김영희, 2005; 이정은, 이영호, 2000), 배우자의 폭력, 배우자의 공격성이나 의사소통 양식과 같은 배우자의 특성들(예: 이종선, 권정혜, 2002)이다. 한편 최근에서는 부부 각자의 개별 특징보다는 부부 모두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dyadic) 변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재홍, 전명진,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이 중 대표적인 이자 변인은 부부의 유사성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룬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성격(예: 김향련, 고재홍, 2007), 결혼가치관(예: Acitelli, et al., 1993) 및 성역할 태도(예: 김혜원, 1997; Osmond & Martin, 1975)의 일치여부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안녕감(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혼기간, 부부 유사성 및 부부이해

부부가 여러 측면서 서로 부부가 유사하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후, 동일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행동 유전학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유사성의 근원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남편과 부인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닮았는지 반영해주는 유사성의 정도는 사회의 유전적 변이(genetic variance)와 유전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Feng & Baker, 1994). Rushton (1989)의 제안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타인들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탐지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모든 개인에게는 자신의 유전자들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만일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유전자 풀(pool)중의 우리의 몫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마침내 우리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받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전적으로 유사한 짝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유전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배우자 선택에서 태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Hill과 Peplau(1998)는 유사성이 큰 부부일수록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Feng과 Baker(1994)는 결혼초기에는 부부간 성격이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성격이 닮아간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허윤미(2001)의 개관에 따르면, 실제 결혼한 부부들은 교육수준, 지능,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부부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신장이나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성의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충된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여러 측면에서 부부간 유사성 크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이유는 유사성이 큰 부부일수록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Hill 등(1998)은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들 중 결혼 후 2년 반이 지났을 때, 갈라 선 부부보다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이 여러 영역에서 더 유사한 쌍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들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더욱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lankenship, Hant, Hess, & Brown, 1984).

결혼 전 두 사람의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여러 측면에서 부부가 서로 유사해진다는 이러한 주장을 수렴가설이라 한다. Caspi, Herberner 및 Ozer(1992)는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의 성격유사성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Kelly가 1935년~1938년에 처음으로 접했던 300쌍의 약혼자 쌍들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수행했던 종단 연구에서 나온 자료들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 유사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비록 종단적 연구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기간과 부부유사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고재홍과 전명진(2003), 김향련과 고재홍(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수렴가설의 지지 증거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즉 두 연구 모두에서도 부부간 유사성 크기는 그들의 결혼기간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를 정확히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는 자기공개(self-disclosure) 이론(Altman & Taylor, 1973)을 들 수 있다. 자기공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두 사람간의 '우리'라는 연계이며, 이는 친밀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공개가 주는 두려움, 즉 거절이나 위협 또는 배신 때문에 진정한 자기공개를 꺼린다. 그러나 자신이 신뢰하는 배우자나 아주 가까운 친구, 치료자, 종교적 충고자에게는 자기를 공개하기 쉽다. 자기공개가 큰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Kenny와 Acitelli(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는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긴 친구일수록 상대방의 성격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부부도 결혼 후 서서히 배우자에 대한 침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자기공개가 많아지고 그 결과 배우자의 여러 측면에 대해 점점 더 정확히 파악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결혼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배우자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부유사성과 이해의 효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성공적인가? 특히, 인종, 교육 수준, 소득 및 종교 등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속성들이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결과들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예: 김향련, 고재홍, 2007; Acitelli, et al., 1993; Morry, 2007). 유사성효과에 따르면, 한 대상 X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비슷한 성향을 보일 때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게 되며, 대상 X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실제의 친구들과 연애 상대자들의 태도를 다룬 상관연구 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실험연구들에서도 유사성효과가 입증되었다(Berscheid & Walster, 1978; Byrne & Blaylock, 1963).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더 좋아하는 유사성효과는 연애크플이나 부부들의 경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Byrne & Blaylock, 1963; Gonzaga, Campo, & Brasbury, 2007; Morry, 2005).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이 유사한 부부일수록 그 가정의 불화가 적었으며 아이들이 정서적, 행동적으로 더 건강하였다(Dawson,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여러 연구들을 근거로 Fletcher, Rosanowski 및 Fitness(1994)는 부부간의 유사성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초석이라고 결론내렸다.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성격, 취미, 결혼가치관, 일반 가치관의 4가지 영역에서 부부 유사성 중 부부간의 결혼가치관 유사성 크기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결론내렸다. 김향련과 고재홍(2007)은 부부간의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과 상호 이해의 크기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사성과 상호이해를 부부의 상호 지각의 일치도(차이값의 절대값)로 측정하였다. 상호 지각의 일치도의 종류에 따라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실제유사성(남편-부인 자기지각의 일치

도), 가정된 유사성(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의 일치도), 이해(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상대방의 자기지각의 일치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성격의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가치관의 경우, 남편의 실제 유사성과 부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자기공개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자기공개 수준과 그와의 친밀도는 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자기를 공개하는 수준이 높고, 그 결과 친밀관계속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서로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밀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을 잘 알고 있을수록 관계의 질이 우수하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우관계에서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서로 친밀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wes & Mulford, 1966). 한편 Kenny와 Acitelli(1994)에 따르면 양자간에 유사성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부부를 다룬 Acitelli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갈등시 배우자가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크기(즉 배우자가 갈등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정도)는 그들의 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부인에 대한 갈등대처 행동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결혼생활의 불화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방에 대한 성격의 이해크기와 교우관계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고재홍, 김명렬, 2004)에서 청소년들의 학급 짝꿍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의 이해정도는 그에 대한 호감 크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와 상대방에 대한 호감 혹은 만족도는 두 사람간의 관계 종류(예: 동성친구, 부부 등)와 이해의 측면(예: 성격, 태도, 갈등해결 전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양자간의 이해크기에 따른 관계만족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부를 대상으로 여러 측면(즉 3가지 측면)에서의 영역별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지, 또한 어느 측면의 이해가 안녕감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부간의 일치도 측정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Kenny의 이자(dyad)관계 모형(Acitelli, Kenny, & Weiner, 2001; Kenny & Acitelli, 2001)을 기초로 하여 자기 지각과 배우자 지각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지각 차이를 산출하는 준거에 따라 여러 가지 상호지각의 일치유형이 나올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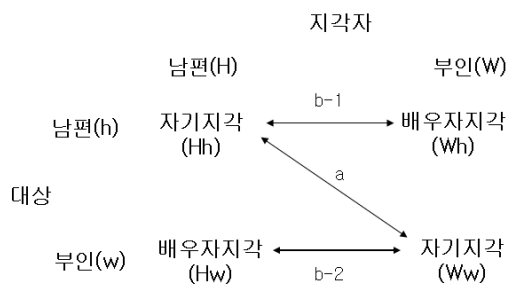


그림 1.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유형
유사성(a),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b-1),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b-2)

참조).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이자관계에서 상호지각의 일치성은 유형에 따라 유사성(similarity) 및 이해(understand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의 경우, 남편(또는 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과 부인(또는 남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정도는 유사성 크기로 볼 수 있다. 반면 이해란 배우자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Acitelli et al., 1993).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배우자의 특정 측면에 대한 지각 정확성(accuracy)으로 볼 수 있다(Kenny, 1994).

유사성

유사성이란 대인 지각에서 두 사람 각각의 자기지각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그림 1에서 a).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성격유사성 크기는 남편의 자기 성격 지각과 부인의 자기 성격 지각간의 일치도 크기를 말하며, 이는 두 사람의 측정치를 프로파일로 나타낸 다음, 두 사람의 프로파일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지녔는지를 수치(상관계수)로 알아 볼 수 있다. 프로파일 형태가 유사하다면 둘 간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

이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지각(평가)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람(배우자)이 그 사람을 지각(평가)하는 것 사이의 일치로 정의할 수 있다(Byrne & Blaylock, 1963).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적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자의 평가가 그 표적인물 자신의 평가와 일치한다면 평가자는 그 표적인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는 의미와 같은 이해이다. Kenny 등(1994)에 따르면 대인지각에서 이해는 지각의 정확성(accuracy)과 같은 의미로서 A가 B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한다면, A는 B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해란 부부가 배우자의 어떤 속성(예: 성격)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부 관계에서의 이해는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남편의 부인 이해 정도란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를 말하는 반면, 부인의 남편이해 정도란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이다. 즉 전자는 남편의 배우자지각(Hw)과 부인의 자기지각(Ww)간의 일치도를 말하며, 후자는 부인의 배우자지각(Wh)과 남편의 자기지각(Hh)간의 일치도를 말한다.

일치도의 지표

대인간 지각 연구에서 양자간의 일치도(예: 유사성) 크기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각자가 보고한 자기지각들 간의 닮은 정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특히 평가대상이 단일 측정치로 구성된 경우(예: 호감), 양자간의 일치도 크기는 두 측정치간의 거리로 쉽게 평가할 수 있다(예: 둘 간의 호감차이의 절대값). 그러나 성격과 같이 평가대상이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경우, 두 사람간의 일치도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측정치간의 변산성 크기를 산출하거나 프로파일 형태의 일치정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Cronbach & Gleser, 1953).

변산성의 크기를 일치도로 보는 경우는 여러 하위 특성들로 구성된 각자의 측정치에서 각 개인의 하위 특성 평정값의 변산성(실제로는 변량)을 구한 다음, 두 사람의 변산성의 차

이값(실제로는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변산성은 양자간의 ‘불일치’ 지표인 셈이다. 또한 변산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양자간에 유사한지 혹은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의 일치도로 알아보는 방법은 각자에게 측정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예를 들어 빅-5로 성격을 측정한 경우, 한 사람의 성격평가 측정치는 5개가 됨), 각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 두 프로파일의 모양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프로파일의 생김새(shape)가 유사할수록 양자간의 일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프로파일의 일치도 지표는 둘 간의 상관계수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10가지 측면에서 부부 각자의 결혼가치관을 측정한 다음, 각자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결혼가치관 유사성(일치도)을 그림으로 나타낸 예이다.

부부유사성을 나타내는 프로파일 일치도 지표는 부부간 특성의 전반적 형태가 유사한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일치도 크기(r)의 유의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¹⁾. 또한 이를 이용하면 둘 이상의 집단(예: 연애 커플 對 부부)간 일치도 크기의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부부 양자간 프로파일 일치도 지표를 사용하여 3가지 영역별 유사성과 이해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프로파일 일치도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변수가 3~10개인 경우가 바람직하다(Kenny, et al., 2006)는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각 영역에서 5~10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1) 그림 2 부부 경우는 $r=.62$ 로서 $df=8$ 에서 $p<.05$ 로서 둘의 결혼가치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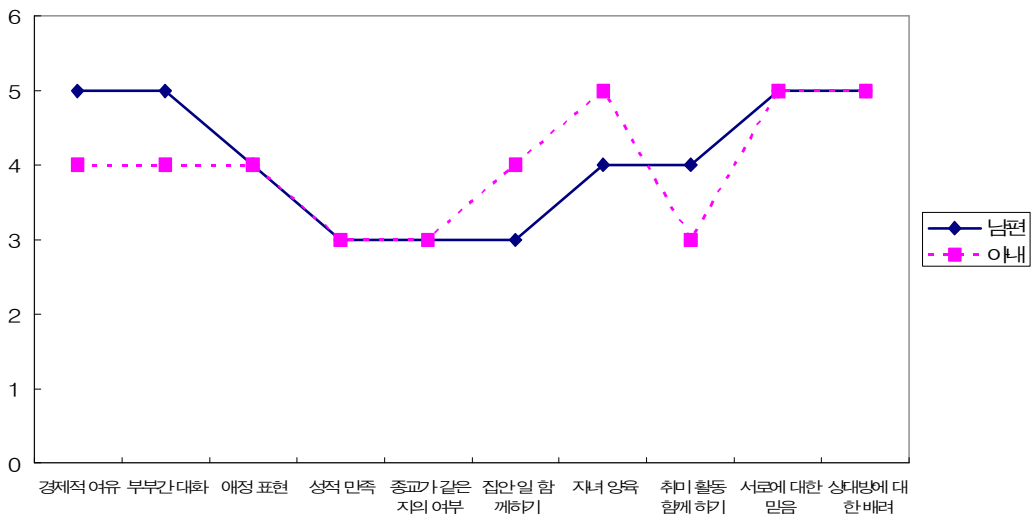


그림 2. 프로파일로 본 결혼가치관의 부부 유사성 크기 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같이 여러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특성들에서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부부간 프로파일 일치도 지표를 선택하였다. 이 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부부들은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 등에서 실제로 서로 유사하며, 배우자의 그것들에 대해 정확히 지각(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둘째, 부부들의 주관적 안녕감, 3영역에 대한 유사성 및 이해크기는 결혼기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은 3영역에 대한 유사성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에 따라 부부 각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임의로 표집된 서울, 마산, 창원, 거제, 통영, 진해, 김해 지구에 거주하는 결혼기간이 다양한 부부 133쌍을 대상으로 일련의 척도에 자신과 배우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다²⁾. 구체적으로 응답부부의 결혼연령 분포는 1년 미만 10.5%, 1-5년 19.8%, 5-10년 20.0%, 10-15년 16.9%, 16-20년 18.8%, 21-25년 7.6%, 그 이상 6.7%이었다. 각각의 부부에게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각각 제작된 척도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부부쌍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코드를 부여해 두었고, 응답 부부들에게는 각자 익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응답자들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응답하게 하였으며, 직접 만날 수 없는 일부 응답

방법 및 절차

2) 본래 연구대상은 170쌍이었으나,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37쌍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3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들의 배우자들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응답을 받았다. 양쪽 부부 모두의 자료가 수집된 경우만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성격 지각

부부들의 성격에 대한 자기지각과 배우자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 이론 중 5요인 모델에 근거한 한국형 빅-5 성격심리 검사(서은국, 최인철, 2005)를 바탕으로 백수경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성격특성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을 각 요인별로 3문항씩 모두 15문항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향성 측정문항으로 “나는 모임의 활력소이다”, “나는 나서지 않는다” 등이다. 정서적 안정성 문항으로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기분의 변화가 잦다” 등을 선정하였다. 성실성 문항으로 “나는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 “나는 일을 대충한다” 등을 선정하였다. 원만성 문항으로 “나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 선정하였다. 개방성 문항으로 “나는 어떤 일을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등을 선정하였다. 한편 배우자의 성격 지각을 위한 문항에서는 자기 지각에서 사용한 문항들에서 “나는 ~ ” 부분을 “부인은 ~ ” 혹은 “남편은 ~ ”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 자신의 성격 특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의 경우, 배우자(예: 부인)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사용할 때는 “내 부인은 사람을 편하게 한다” 등과 같이 바꾸어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요인별로 .62~.79이었다.

결혼가치관

부부들의 결혼가치관 측정을 위해 Acitelli 등(2001)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결혼을 위한 조건을 알아본 연구에서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한 13가지를 참조하였다. 13가지 항목들 중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고재홍과 전명진(2003), 김향련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10가지 항목들(경제적 여유, 부부간 대화,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가 같은지의 여부, 집안 일 함께 하기, 자녀 양육, 취미 활동 함께 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배우자에 대한 배려)을 선정하였다. 부부들에게 위의 10가지 항목 각각이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배우자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유’는 당신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역할 태도

부부의 여성과 남성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혜원(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태도 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예: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가장인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은 가정, 직업, 성격 및 행동 등

세 분야에서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부들에게 위의 15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전통적인(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혜원(1997)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 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1976)의 주관적 안녕감 지표(Index of Subjective Well-being)를 한정원(1997)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에 해당하는 9 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1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행복감의 크기를 평정하는 문항이다.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들(9문항)은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예: 행복한 - 불행한) 중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점에 배치한 후, 1점에서부터 7점까지 평소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요즘 나의 생활은 ...” ‘행복하다(1점)’에서 ‘불행하다(7점)’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래 척도의 문항 중 “친구와 잘 지낸다”는 각각 “부인(혹은 남편)과 잘 지낸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정원(1997)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87, 부인의 경우는

.89 이었다.

일치도 산출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쌍 부부의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대한 자기평가 값과 배우자평가 값으로 두 사람의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구하였다. 먼저 산출된 프로파일 지표(r)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하여, 각 부부의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를 산출하였다. 결혼기간에 따라 각 영역별 유사성과 이해가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의 결혼기간(개월 수)과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Fisher의 z 값)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와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영역별 유사성 및 이해크기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부부 각각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참여한 133쌍의 부부의 결혼기간은 1개월-40년 사이이었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1년 2개월(표준편차 8.7년)이었다. 남편의 나이는 평균 40.6세이었으며, 부인의 나이는 평균 37.6세 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53명이었다. 부부의 안녕감은 7점 만점에 남편이 평균 5.14(표준편차 0.92), 부인이 평균 5.24(표준편차 0.94)로 차이가 없었다, $t(132)=0.97, ns$. 한편 부부의 안녕감은 상호적이었다. 즉 남편의 안녕감이 큰 경우는 부인의 안녕감도 높았다,

$r(131)=.30, p<.01$.

영역별 부부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의 크기

부부 유사성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부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부부의 프로파일 일치도 평균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영역별 부부간 유사성 평균 및 표준편차

| | 성격 유사성 | 결혼가치관 유사성 | 태도 유사성 |
|------|-----------|--------------|-----------|
| 평균 | .39** | .63** | .40** |
| 표준편차 | .44 | .59 | .46 |

수치는 부부간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상관계수)의 평균임. ** $p<.01$

세 가지 영역별 부부 유사성의 크기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성격 유사성 평균(\bar{r})은 .39, 결혼가치관의 유사성 평균(\bar{r})은 .63,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평균(\bar{r})은 .40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1$ (양방검증)³⁾. 즉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부부는 실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 부부의 유사성 크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2, 264)=32.68, p<.01$. 사후검증(LSD) 결과, 결혼가치관 유사성($\bar{r}=.63$)은 성격 유사성($\bar{r}=.39$)과 성역할 태도 유사성($\bar{r}=.40$)보다 컸으며(각각

$F(1, 132)=42.32, F(1, 132)=37.95, p<.01$), 성격 유사성과 성역할 태도 유사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ns$. 즉 부부들은 세 가지 영역 중 결혼가치관에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이해크기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대한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와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는 영역별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기의 평균이다.

표 2에서 보듯, 세 영역에서 부부간 이해의 크기는 $\bar{r}=.39 \sim \bar{r}=.69$ 로서 모두 유의하였다, $p<.01$. 즉 남편과 부인은 배우자의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2) × 이해 영역(3)의 변량 분석을 하였다. 먼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크기($\bar{r}=.56$)와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기($\bar{r}=.54$)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F(1, 132)=0.95, ns$. 영역별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64)=36.07, p<.001$. 이를 사후검증(LSD)한 결과, 부부들은 결혼가치관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bar{r}=.65$)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성격이해($\bar{r}=.57$), 성역할 태도 이해($\bar{r}=.41$) 순이었다, 모든 비교쌍 $p<.01$.

또한 이해대상과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F(2, 264)=5.10,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이 상호작용을 사후검증(LSD)한 결과, 그림 3에서 보듯 성격의 경우 남편의 부인 이해($\bar{r}=.55$)와 부인의 남편 이해($\bar{r}=.59$)의 크기는

3) Kenny와 Winqvist(2001)에 따르면, 평균 상관계수의 유의도 검증은 $Z = \bar{Z} \sqrt{(K-3) \cdot N}$ 의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bar{Z} 는 각 쌍의 상관계수를 변환한 Fisher's Z값의 평균치이고 K는 측정치의 수, N은 쌍의 수이다.

표 2. 부부간 영역별 배우자 이해크기의 평균(표준편차)

| | 성격 | 결혼가치관 | 성역할태도 |
|-----------|------------|------------|------------|
| 남편의 부인 이해 | .55**(.45) | .69**(.70) | .42**(.40) |
| 부인의 남편 이해 | .59**(.40) | .61**(.60) | .39**(.40) |

수치는 \bar{r} 임. ** $p < .01$ (양방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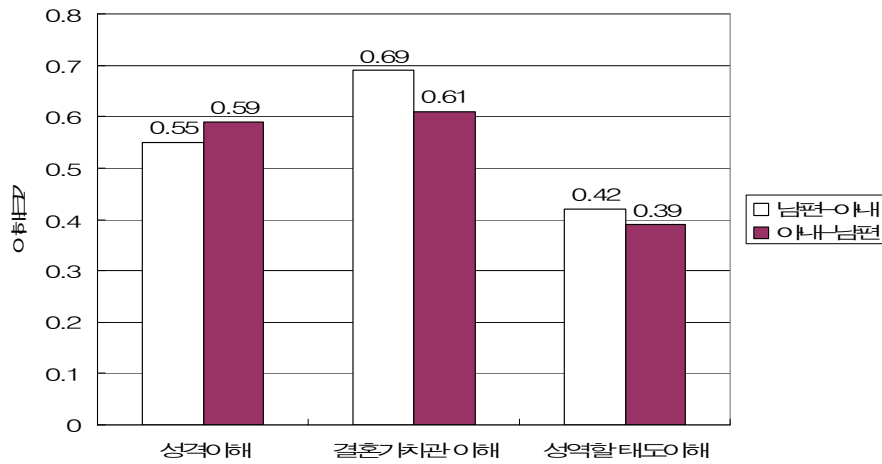


그림 3. 부부의 영역별 이해크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 132)=2.43, ns$. 또한 성역할 태도에서도 남편의 부인 이해($\bar{r}=.42$)와 부인의 남편 이해($\bar{r}=.39$)의 크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32)=0.66, ns$. 그러나 결혼가치관에서는 남편의 부인 이해($\bar{r}=.69$)가 부인의 남편 이해($\bar{r}=.61$)보다 크게 나타났다, $F(1, 132)=5.05, p < .05$. 즉 부인이 남편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보다 남편이 부인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른 안녕감, 부부유사성 및 배우자 이해크기

먼저 부부의 결혼기간에 따른 남편과 부인

각자의 안녕감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혼기간은 부부의 평균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r=-.31, p < .01$. 즉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안녕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r=-.30, r=-.27, p < .01$.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유사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부들의 성격, 결혼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크기와 결혼기간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성격($r=.01$), 결혼가치관($r=-.08$), 및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r=.01$) 중 그 어느 것도 결혼기간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 이해의 크기와 결혼기간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결혼기간과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크기간 상관은 성격($r=-.03$), 가치관($r=-.03$), 성역할 태도($r=.08$)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기간과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기간 상관계수도 성격($r=-.05$), 가치관($r=-.02$), 성역할 태도($r=-.07$)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크기와 안녕감간의 관계

부부간 유사성 크기와 안녕감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 각각의 유사성의 크기가 부부의 안녕감과 관련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3가지 영역의 부부 유사성 중 어느 것이 부부의 안녕감과 관련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은 결혼기간(남편 $r=-.30$, 부인 $r=-.27$)과 자녀수(남편 $r=-.26$, 부인 $r=-.23$)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 1단계에서 결혼기간과 자녀수를 통제하고 제 2단계에서 영역별 유사성 크기를 투입하여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 각각을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보듯, 부부간 모든 영역별 유사성은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즉 부부간 성격, 결혼가

치관 및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크기는 어느 것도 부부의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부간 영역별 상호 이해의 크기에 따른 안녕감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 각각의 이해의 크기에 따른 부부의 안녕감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제 1단계에서 결혼기간과 자녀 수를 통제하고 제 2단계에서 영역별 남편과 부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로 부부 각각의 안녕감을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남편의 부인 성격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안녕감($\beta=.27, p<.01$) 뿐만 아니라 부인의 안녕감($\beta=.28, p<.01$)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부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의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인의 남편 성격에 대한 이해는 부인 자신의 안녕감($\beta=.04, ns$)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남편의 안녕감($\beta=.18, p<.05$)만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남편의 안녕감은 높았으나, 자신의 안녕감과 무관하였다.

한편 남편의 부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안녕감($\beta=-.27, p<.01$) 뿐만 아니라

표 3. 부부간 영역별 유사성 크기에 따른 안녕감

| | 남편의 안녕감 | | | | 부인의 안녕감 | | | |
|-------|----------|------|---------|----------|----------|------|---------|----------|
| | <i>b</i> | 표준오차 | β | <i>t</i> | <i>b</i> | 표준오차 | β | <i>t</i> |
| 성격 | -.01 | .01 | -.05 | -0.41 | -.15 | .24 | -.07 | -0.59 |
| 결혼가치관 | -.11 | .15 | -.08 | 0.77 | -.06 | .15 | -.04 | -0.38 |
| 성역할태도 | .28 | .21 | .15 | 1.31 | .19 | .22 | .10 | 0.86 |

표 4. 영역별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에 따른 안녕감

| | 남편의 안녕감 | | | | 부인의 안녕감 | | | |
|--------|---------|------|---------|---------|---------|------|---------|--------|
| | b | 표준오차 | β | t | b | 표준오차 | β | t |
| 남편->부인 | | | | | | | | |
| 성격 | .55 | .18 | .27 | 2.98** | .59 | .19 | .28 | 3.07** |
| 결혼가치관 | -.36 | .12 | -.27 | -2.91** | -.32 | .13 | -.23 | -2.53* |
| 성역할태도 | .15 | .18 | .07 | 0.85 | .27 | .19 | .12 | 1.44 |
| 부인->남편 | | | | | | | | |
| 성격 | .41 | .20 | .18 | 2.09* | .08 | .21 | .04 | 0.40 |
| 결혼가치관 | -.10 | .14 | -.06 | 0.45 | -.09 | .15 | -.05 | -0.62 |
| 성역할태도 | .10 | .20 | .04 | 0.49 | -.14 | .21 | -.06 | -0.67 |

* $p < .05$, ** $p < .01$

부인의 안녕감($\beta = -.23, p < .05$)을 모두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이 부인의 결혼가치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의 안녕감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인의 남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과 모두 무관하였다, 각각 남편의 안녕감 $\beta = -.06$, 부인의 안녕감 $\beta = -.05, ns$.

마지막으로 남편의 부인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와 부인의 남편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는 모두 부부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각 남편의 안녕감 $\beta = .07, \beta = .04$, 부인의 안녕감 $\beta = .12, \beta = -.06, ns$.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남편의 안녕감은 남편 자신이 부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높았다. 한편 부인의 안녕감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높았으나, 자신이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의 결혼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오히려 남편 자신의 안녕감과 부인의 안녕감은 낮았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대한 부부의 상호 이해의 크기는 부부의 안녕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부의 상호 이해 중 성격의 이해가 부부의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와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13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 ‘결혼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으로 제한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간 영역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가 다른지, 이들이 결혼기간에 따라 다른지, 또한 이들의 크기가 부부 각자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한 부부들은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즉 모든 영역에서 부부간 프로파일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 가지 영역의 부부유사성 크기를 분석한 결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이 성격과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들이 일반 가치관, 결혼가치관, 취미, 성격 등 모든 영역에서 유사성을 보이며, 일반 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 크기가 취미와 성격의 유사성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부부간 영역별 이해크기에서 부부는 대체로 배우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들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배우자 이해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성격,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 순이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과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관의 경우 부인이 남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남편이 부인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둘째, 성격, 결혼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부부 유사성 크기는 결혼기간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 부부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 크기가 결혼기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동류혼인(homogamy)의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즉 결혼 후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비슷한 성격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수렴 가설보다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유사한 사람끼리 부부가 된다는 동류결혼 가설과 더 부합되는 결과이다. 비록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었지만, 종단자료를 이용한 Caspi, Herberner, 및 Ozer(1992)의 연구에서도 1970년 조사한 부부간 CPI 성격 검사상의 부부간 성격 상관계수의 평균이 .19이었으나, 10년 후의 부부간 성격 상관계수 평균이 .13으로 오히려 약간 낮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도 결혼기간과 무관하였다. 이는 자기공개 이론(Altman & Taylor, 1973)에 근거하여 부부는 결혼기간이 지날수록 서로 배우자에게 자기공개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의 특성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부부는 결혼기간의 초기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크기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해크기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즉 결혼기간과 이해크기가 곡선적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한 다음, 이들의 배우자 이해크기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 중 어느 것도 결혼기간에 따른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와 안녕감과의 관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영역별 유사성은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일부 기존의 연구결과들(예: Gonzaga et al., 2007)과 상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애키퍼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Gonzaga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커플간의 성격유사성은 정서유사성

(emotion similarity)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재홍 등 (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가치관의 유사성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

한편 부부의 배우자 속성에 대한 이해 정도는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다. 즉 남편의 부인에 대한 성격, 결혼가치관의 이해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편의 부인에 대한 성격할 태도의 이해는 부부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부인의 남편에 대한 성격 이해는 남편의 안녕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부인 자신의 안녕감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인의 남편에 대한 결혼가치관 및 성격할 태도에 대한 이해는 남편, 부인 모두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부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남편의 안녕감이 높았다. 한편 부인의 안녕감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높았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의 결혼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오히려 남편 자신과 부인의 안녕감은 모두 낮았으며 성격할 태도에 대한 부부의 상호 이해크기는 부부의 안녕감과 모두 무관하였다. 남편의 부인에 대한 결혼가치관 이해크기의 효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아직 분명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들은 남편과 부인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전체적으로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가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보다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부행복을 위해 보다 중요함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예: Acitelli et al., 2001)을 참조하여 성격, 결혼가치관, 성격할 태도 등으로 제한된 세 가지 영역에서 부부의 유사성과 이해크기 및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부의 안녕감과 같은 결혼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지 세 영역으로만 임의적으로 제한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측정 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부간 상호지각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의 상호지각은 전반적 안녕감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나 호감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종속 변인(예: 부부갈등)을 선정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일부 연구들(예: 김향련 등, 2007; Acitelli, et al., 1993; Osmond et al., 1975)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부가 유사할수록 그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유사성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은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감(혹은 행복감)인 반면,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주관적 안녕감은 결혼만족도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부요인 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들(예: 경제수준, 자녀문제 등)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두 측정치는 외현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행복감을 측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들이 상충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⁴⁾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임의로 표

4) 주관적 안녕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자의 제안으로 감사한다.

집된 결혼기간이 다른 13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일종의 횡단 연구이었다. 더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는 결혼기간이 매우 상이한 쌍들이었다,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유사성은 결혼 초기에는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결혼 후반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기간의 구분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별로 구분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결혼기간을 임의적으로 한정하여(예: 결혼 3년 이내를 '신혼'이라고 가정하고) 신혼인 부부쌍만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종단연구를 사용하여 결혼기간에 따른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의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내린 상대방의 특성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의 여부(즉 이해크기)에 대한 준거를 판단 대상의 자기지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는 부인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판단자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보는 준거는 다양하다(Kruglanski, 1989 참조). 판단의 정확도를 알아보는 준거는 연구마다 다르다. 즉 전문가의 판단, 조작적으로 정의된 기준, 여러 사람의 판단 평균치(Funder, 1995) 및 실제 관찰된 행동(Kenny et al., 2007)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에 대한 공격성 판단은 그 학생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그에 대한 판단(예: 공격성 크기)이 판단정확도의 준거로 사용되기도 한다(예: Malloy, Yarlas, Montvilo, & Sugarman, 1996).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준거로 사용하였으나 또 다

른 준거(예: 객관적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부부유사성과 이해크기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간에 있어 유사성과 이해라는 복잡한 상호지각의 크기를 단순한 차이 점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아닌 프로파일 일치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치들과 특별한 이자 관계인 부부의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부부의 유사성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성격을 여러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부의 성격이 유사한가를 밝히기 곤란한 점을 극복하고 전체 성격의 유사성을 프로파일 형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양자간 지각의 프로파일 일치도를 이용하여 부부간 유사성 이외에 상호 이해의 크기를 알아 본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 상호 지각의 일치도는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한 이자 관계를 이루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예: 연애크플, 상사와 부하), 다양한 종속변인(예: 자녀에 미치는 효과, 연애기간의 지속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의 이해크기는 공감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이해크기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예: 성, 권력)을 밝히는 것도 주목받는 연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내에서 직장상사의 부하 특성에 대한 이해크기보다는 부하들이 상사의 특성에 대해 이해크기가 클 수 있다. 또한 상사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부하들의 상

사특성 이해크기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즉 상사는 눈치가 빠른 부하를 높게 평가함). 이러한 양자간의 프로파일 일치성을 이용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재홍, 김명렬 (2004). 청소년 교우간 성격 유사성, 상호성, 이해 및 호감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1), 53-64.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 권정혜 (2000).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697-712.
- 김선영, 김영희 (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 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41-57.
-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백수경, 고재홍 (2007). 자기고양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89-104.
- 서울신문 (2006, 4, 12). 신랑·신부감 순위의 허실. 사회면.
- 서은국, 최인철 (2005). 빅-5 성격 검사.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중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한정원 (1997). 자기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윤미 (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 결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29-448.
- Andrews, F. M., & Robinson, J. P. (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P. Robinson, P. R. Shaver, and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Vol.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Altman, A.,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erscheid, E., & Walster, E.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Blankenship, V., Hant, S. M., Hess, T. G., & Brown, D. R. (1984). Reciprocal interaction and similarity of personality attribut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415-432.
- Byrne, D., &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36-640.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aspi, A., Herbener, E. S., & Ozer, D. J. (1992). Shared experiences and the similarity of persona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81-291.
- Cronbach, L. J., & Gleser, C. C. (1953). Assessing similarity between profile. *Psychological Bulletin, 50*, 456-473.
- Dawes, R., & Mulford, M. (1966).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d over-confidence: Flaws in judgement or flaws in how we study jud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5*, 201-211.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73-584.
- Feng, D., & Baker, L. (1994). Spouse similarity in attitud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 Genetics, 24*, 357-364.
- Fletcher, G. J. O., Rosanowski, J., & Fitness, J. (1994). Automatic processing in intimate contexts: The role of close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88-897.
- Funder, D. C. (1995). On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 A realistic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2*, 652-670.
- Gonzaga, G. C., Campo, B., & Bradbury, T. (2007). Similarity, converg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4-48.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48.
- Hill, C. T., & Peplau, L. A. (1998). Premarital predictors of relationship outcomes: A 15-year follow up of the Boston Couples Study.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 Acitelli, L. K. (1994). Measuring similarity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417-431.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I. (2006). *Dyadic data analysis*. NY: Guilford Press.
- Kenny, D. A., West, T. V., Cillessen, A. H., Coie, J. D., Dodge, K. A., Hubbard, J. A., & Schwartz, D. (2007). Accuracy in judgments of aggress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225-1236.
-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Kruglanski, A. W. (1989). The psychology of being "right": The problem of accuracy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395-409.
- Malloy, T. E., Yarlas, A., Montvilo, R. K., & Sugarman, D. B. (1996). Agreement and accuracy in children's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92-702.
- McDowell, I. & Newell, C. (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y, M. M. (2005).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a predictor of similarity rating: A test of the attraction-similarity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22, 561-584.
- Morry, M. M. (2007). The attraction-similarity hypothesis among cross-sex friends: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ceived similarity, and self-serving percep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24, 117-138.
-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44-758.
- Rice, P. F.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 Rushton, J. P. (1989). Genetic similarity, human altruism, and group se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2, 503-559.
- Veit, C. T., & Ware, J. E. (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30-742.
- 1 차원고접수 : 2008. 4. 28.
심사통과접수 : 2008. 6. 3.
최종원고접수 : 2008. 6. 9.

Similarity, Understand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arried Couples

Mi-Kyoung Kim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current work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everal indices of perceptual congruence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in married couples. Major questions were whether the indices of perceptual congruence were vary to domains and married period, and whether they are related to their subjective well-being. Married couples having various married period responded on some scales to find out perceptions of the self and his(her) spouse's about personality, ideals for marriage, and gender-role attitude. The couple's two profile congruences were calculated to measure of couple similarity and spouse understanding by Kenny, Kashy, and Cook(2006)'s suggestion. Results showed that couples were actually similar each other on profile in all of three areas. Spouses' understanding of his(her) spouse on ideals for marriage was greater than them on personality and gender-role attitude. But the magnitude of coupl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spouse's disposition had not related with married period. Findings also showed that the couple's similarities does not related with their subjective well-being, but the understanding of spouse's dispositions related with it.

Key words : married couple, personality, ideals for marriage, gender-role attitude, couple similarity, spouse understanding, subjective well-being